

삶 속 사라져가는 풍경의 의미를 묻다

보성 우종미술관, 이이남작가 초대전 '생각하는 풍경'展

'달항아리'·'해경' 등 미술관 소장품 재해석 미디어아트 콜라보 물아일체로 자아 성찰

우리 삶과 현재 형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라져가는 풍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보성 우종미술관 제1, 2전시실에서 열리는 이이남 작가 초대전 '생각하는 풍경'이다.

우종미술관은 해마다 국내외 역량 있는 작가를 선정해 초대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한국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전시는 우종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기획된 미디어아트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전시에서는 이 작가가 우종미술관에서 바라본 풍경에서 느꼈던 감정을 포착해 평면,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자연의 현상과 삶의 느낌을 진솔하게 드러낸 명화를 차용해 생동감을 나타내는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담양 출신인 이 작가는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접한 남도의 풍경을 작품 속에 드러냈다. 그는 대상을 '풍경(Landscape)'으로 보는 서구적 관점이 아닌 '산수(山水)'로 여기는 동양 정신을 추구한다. 대상과 주체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로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 작가는 관객과 작품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풍경을 제시하며 관람자가 작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우종미술관 소장품인 오지호 선생의 '해경' 작품을 재해석한 미디어작품을 비롯해 미술관 일층 천정에서부터 쏟아지는 폭포 형상으로 재해석된 소장품 '달항아리'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23 김홍도 묵죽도', '신-금강전도', 에드워드 호퍼 작품과 반 고흐 자화상 등이 작가의 신작도 전시한다.



달항아리 풍경



신-금강전도



미디어아트로 만나볼 수 있는 오지호 작품 '해경'

(우종미술관 제공)

우영인 우종미술관은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시대를 공유하고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정신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며 "우리 주변의 풍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주최로 14일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행복한 동행 그대들을 위한 힐링콘서트'에 참가한 장애인근로자와 사회복지사들이 '배리어 프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2회 행복한 동행 그대들을 위한 힐링콘서트'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콘서트 성료

장애인근로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성료됐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정찬훈)는 14일 오후 2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제2회 행복한 동행 그대들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열어 장애인근로자 및 가족에게 잊지 못할 힐링의 시간을 갖게 했다.

이날 콘서트엔 인기 트로트 가수 김수현과 별사랑이 출연해 흥겨운 트로트를 선사한데 이어 퓨전국악밴드 비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더원밴드, 남구장애인양상불 칸타빌레, 단스팀 피모션크루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 내 고충 해결과 직장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기관이다. 임금체불이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직업활동 유지를 돕고 있다. 정찬훈 센터장은 "장애인 근로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을 돕는 동시에 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취업 후 안심하고 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와 토대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명진기자

서현도자기 '화순군민 자선바자회'

16-20일 광산근로자복지회관

서현도자기 자선바자회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화순 광산근로자복지회관 1층 서현도자기(화순읍 충의로42)에서 열린다.

이번 자선바자회는 한국 도자기 문화 발전과 더불어 어려운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예가 서명수(사진) 씨가 제작한 우수한 전통 도자기를 선보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다.

도예가로서 삶을 산 지 20여년이 돼가는 세월 동안 서도예가는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만의 도자를 만들어왔다.

16일 오후 6시30분 개막식에서는 임채만 명인의 난타 공연, 이애자 씨의



민요, 오목대씨의 대금, 김지운 씨의 성악, 흥진주 씨의 가요, 김희숙 씨의 임춘고전무용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서도예가는 "이번 자선바자회는 20여년 도예가 인생이 담긴 도자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선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제8회 광주서예페스티벌

22-28일 금호갤러리

광주서예상에 죽전 송흥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광주서예페스티벌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린다.

14일 (사)광주서예인협회에 따르면 서예인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제8회 광주서예페스티벌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와 광주서예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제봉 고경명(馨峯 高敬命)선생의 시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서예페

스티벌은 잊혀져가는 선흔(先痕)을 찾고 아름다운 우리 한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서예페스티벌은 남도 작가 9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한편, 원로작가에게 수여하는 광주서예상은 죽전 송흥범 선생이 수상했다.

송 선생은 대한민국평화서예대전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전남지회장, 한국서예협회 이사, 목포문화재단 이사를 맡는 등 활발한 활

등을 펼치고 있다.

광주서예인협회 관계자는 "서예가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 대중들과 호흡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아쉬움 속에서 서예페스티벌을 통해 맥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준 고경명 선생을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죽전 송흥범 '보리음속도암하점조형(南羅隱逐雲峯下雜草荆)'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0R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 구함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급여 상담 후 결정)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